

70년전 육성... '책'으로 세상 나들이

前 내소사 조실 해안 스님의 '십현담·금강경' 강의 복원



“本來無住(본래 머무는 곳 없어 집이라 이름하지 못하리)”

강의·불법은 안에 있지도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아서 일정한 처소가 없습니다. 일정한 처소가 없다면 무엇을 집이라 하겠습니까? 처소가 없고 집도 없으니 가는 곳마다 청풍명월이지요. 천지가 모두 내집이니 내 집이 따로 없습니다. 청산녹수도 좋고 거리도 중이라도 좋지요.<십현담-파환향중에서>

“須菩提야 如來所得法은 此法이 無實無虛니라 (수보리아, 여래가 얻은 바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강의: 증생은 말만 떨어지면 병을 이루니 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實)을 말하면 실병(實病)이 되고, 허(虛)를 말하면 허병(虛病)이 되므로, 부처님께서 실과 허가 둘 다 없는 근본을 들어서 밝혀셨습니다.<금강경 제 14강-이상적멸분중에서>



십현담·금강경 해안 스님 강의 전등사·전등선림 비매품

<금강경>강의에 대해서만큼은 소문난 인기 강사였던 前 내소사 조실 해안 스님(1901~1974·사진)의 <십현담>과 <금강경> 강의중 일부다. 17세에 전남 장성 백양사로 출가해 화명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해안 스님은 내소사에 주석하며 호남선종을 진좌시켰던 선교에 두루 조예가 깊은 선지식이였다. 특히 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내용이 쉽고 재미있

어 심리길을 떠나고 찾아오는 학인들이 꽤 많을 정도로 인기였다. 다행이도 이 강의 내용은 1930년대 낡은 일제독음기에 담겨졌고, 해안 스님 입적 후 제자인 동명 스님(서울 전등사 주지)은 수십개의 테이프를 풀어 2001년 3권 1집의 <해안집>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그 <해안집> 가운데 <십현담>과 <금강경>에 대한 강의 내용만 선별해 모아 엮은 것이다. 해안 스님의 강의 내용이 쉽고 자세해 몇십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읽어봐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 정도다.

<금강경>이야 널리 알려졌지만 <십현담>은 좀 생소할지 모른다. <십현담>은 중국 당 말때의 선사인 동안상찰(同安常察·872-962) 스님이 지은 선법문인데, 문장은 평이해보이지만 담긴 뜻이 심오해 초학자들이 그 깊은 취지를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께서는 <십현담>을 천번 만번 읽다보면 전에는 못보던 나의 참 얼굴을 보고 속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때가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면서 <금강경>과 함께 단행본으로 묶게 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해안 스님의 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어법에 맞게 고쳐 읽기만 해도 강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에도 빠지면 안돼”

활안 스님 첫 법문집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나와



통현일갈만기복(通玄一喝萬機伏) 언전대기전법륜(言前大機傳法輪) 법계장월일장명(法界長月一掌明) 만고광명장광복(萬古光明長不滅)

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추상같은 수행으로 자신을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강조하는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의 법문집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조계종 원로위원인 활안 스님의 법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활안 스님은 김지 않은 법문들을 통해 깨달으면 부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중생을 향해 스스로의 성품을 바로보고 바로 닦으라는 뜻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하라고 간절하게 당부한다. 법문과 신문 잡지에 소개된 글 그리고 수행의 궤적들로 묶여진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천자암에 근본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천자암에 서너 번 다녀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설거지’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12년간 현대불교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수행전문 작가로 변신한 김성우(본명 김재경)씨가 스님의 법문들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아 묶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활안 스님 지음 김성우 엮음 휴먼앤 북스 1만3500원

조계산 천자암 법당의 주면에 새겨진 구절. 30년 넘게 천자암에서 수행하며 운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활안(活眼) 스님의 오도송이다. 새벽 2시 도량식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활안 스님의 일과는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에도 빠지는 안 된다”는 스님의 지론 그 자체다. 예불과 영가천도기도 국태민원발원 등으로 새벽을 밝히는 스님은 참선과 일 그리고 찾아 오는 운수들의 지도로 충충한 하루를 보낸다.

말리 법문을 하러 다니지도 않고 이런저런 행사에 나가기도 않는다. 팔손을 낚은 노령이지만 젊은이들보다 건강하게 시간을 부리고 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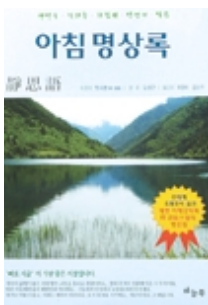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 왔으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탓도 있지만 탐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종락) 자신의 마음자리를 결정하고 노력하면 생사지해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여

대만 자제공덕회 증엄 스님의 ‘자비체험’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증생의 육체를 공양(供養)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지혜로써 충실히 만들고 자비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타이완 불교계를 대표하는 비구니 정이엔(證嚴) 자제공덕회 회주 스님의 말이다. 이 책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칭송받고 있는 정이엔 스님의 법문집이다. ‘자비회사(慈悲喜捨)’의 큰 서원을 세운 정이엔 스님은 1966년부터 타이완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조직해 난민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정이엔 스님의 이런 자비체험들에서 나온 주옥같은 감로법문들이 수록된 이 책은 전 세계에서 6개 국어로 출간돼 100만부 이상 팔린 스티디셀러이기도 하다. 이 책을 현대불교신문사 대만통신원인 이상미씨가 간결한 문체로 번역해 놓아 책 제목처럼 자비명상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자비명상록 정이엔 지음 이상미 옮김 하늘북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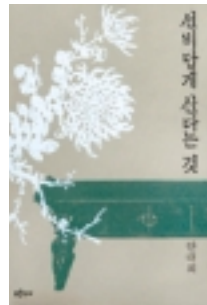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교장교장’ 한 옛 선비들의 삶

답백한 글 솜씨로 옛 글과 옛 사람의 삶을 구수하게 풀어낸 <선비답게 산다는 것>.

이 책은 자신을 ‘호고벽(好古癖)’에 빠진 사람이라 자칭하는 저자가 옛 글을 읽다가 발견한 선비 특유의 모습과 흥미로운 사유의 자취를 간추려 엮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비들의 생활을 보면 그동안 우리들이 짐작했던 선비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으며, 그 이유는 수 백년 전 그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르지만 감성만은 온전히 남아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윤주만, 절식을 실천한 성호 이익의 글, 팔동품 수집에 몰두한 김광수, 만권 장서가 이하곤 등을 소개한 글을 읽다보면 우리를 둘러싼 현재의 삶과 사물들이 옛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선비답게 산다는 것 안대희 지음 푸른역사 | 1만2000원

김주일 기자

마음의 평화 이끄는 길잡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티베트 수행자 촉암 트롱빠의 대표적 저서인 <Meditation in Action>을 번역한 책이다.

서양 세계에 티베트 불교와 명상을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촉암 트롱빠(1939-1976)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중 하나인 카규파의 법맥을 전수받았으며, 18세에 티베트를 떠나 영국, 미국에서 공부와 포교를 이어갔다.

트롱빠 스님은 마음평화를 이끄는 길잡이로써 다르마(법)의 체계적인 수행법을 정립하려 했다. 수행법의 기초코스에서부터 심화된 집단 안거 수련에 이르기까지 그의 프로그램들은 학습과 체험, 지성과 직관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명상이란 삶에서 도피하는 것도, 이상향에 도달하는 것도, 정신수양의 문제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라는 점을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행복한 명상 촉암 트롱빠 지음 한은주 옮김 미디어숲 | 1만원

김주일 기자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 김성우 | 클리어엔드 |
| 2 | 스님 마음이 불만해요 | 법륜 | 정토 |
| 3 | 간화정로 | 월암 | 현대북스 |
| 4 | 인연법과 미음공부 | 해국 | 효림 |
| 5 | 살과 죽음, 버러드의 실제 | 해국 | 정우서적 |
| 6 | 보살 | 최영순 | 은주사 |
| 7 | 오재투지 | 한경혜 | 작가의 집 |
| 8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희로운 삶 |
| 9 | 하루 10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름다이어 |
| 10 | 불멸 | 최현 | 자혜의 눈 |

불서총판 은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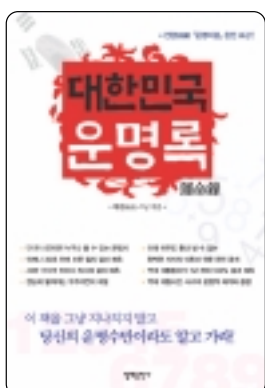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은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화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대) / Fax. 02-3142-4901

신간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배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줬던 경이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오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으므로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사고들……. 8·15광복, 6·25동란,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저자 연락처 | 4984@hanmail.net | 다름카메(금강산해광스님) T. 032-665-8472

